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바빌론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귀향을 선포합니다. 장차 하느님께서 찾아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고향으로 데려가실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딱한 처지를 뜻합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어도 찬미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그들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장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광야와 사막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냇물이 흘러 여정이 전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에는 메시아 곧 구세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죄악과 그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며, 구세주께서 앞

장서시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시자 사람들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로써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은근히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풀리게 해주시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하던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말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가 열렸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들립니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말과 같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두 개이고 얼굴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제대로 들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과 전례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생활로 잘 옮겨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합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기도 중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칩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또한 제대로 삽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다면 제대로 살게 되며 하느님의 복이, 곧 은총이 뒤따를 것입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어른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어디 떡만 생기겠습니까?

강구 본당 이성길 프란치스코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 23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에파타를 외치시며 우리의 귀와 혀를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1, 3절)’

본기도

†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35장 4절-7절

안 내 :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와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어 생명을 살리십니다.

화 답 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 야고보서 2장 1절-5절

안 내 :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목 상 :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을 택하시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당신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7장 31절-37절

강 론 :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1-3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76번 ‘믿음 소망 사랑’

영성체 후 묵상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나 듣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더 큰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각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는 뜻은 한결 같습니다.
“에파타!”

우리 각자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립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6번 ‘순교자의 믿음’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91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9월 30일(연중 제26주일) 계림동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9월15일,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순교자 현양대회**

- 일시 : 9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우곡성지
- 미사주례 :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열린성경강좌 5**

- 일시 : 9월 10일(월) 19:30~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9월 16일(주일)
- 장소 : 한실 교우촌
- 대상 :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 준비물 : 운동화, 편한복장, 미사준비, 묵주

■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9월17일(월)11:00~9월18일(화) 14:00
- 장소 : 문경, 연풍 성지순례
- 집결장소 : 11시 점촌터미널
(안동지구 9:50분 안동버스터미널)
- 참가비 : 45,000원
- 준비물 : 세면도구,운동화,필기구

■ **순교자 성월 기념**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다까?”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고사리> 제주문화원형 스토리 공모전 대상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일시 : 9월11일~13일, 9월 30일~10월2일
10월4일~7일, 10월10일~12일
10월16일~19일, 10월24일~26일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문의 : 064-796-9181

■ **꾸르실료 율레미사**

- 일시 : 9월17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 수시 1차 모집 : 9월10일~9월28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9장

혼인과 가정의 영성

돌봄과 위로와 격려의 영성

324. 성령의 재촉으로 가족은 아이를 낳아 생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퍼뜨리고, 다른 이를 보살피며, 그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열린 마음은 특히 환대로 표현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러한 환대를 설득력 있게 권유합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은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교회의 모성의 상징, 증인, 참여자”가 됩니다. 삼위일체가 반영된 사회적 사랑은 사실 가정의 영적 의미와 다른 이에 대한 가정의 사명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입니다. 가정은 가정교회가 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세포가 되어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실천합니다.

325. 혼인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바오로 성인의 말씀은 우연찮게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삶의 궁극적이며 결정적인 차원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부는 삶의 여정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권고에서 자주 언급된 것처럼,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한 실재가 아니며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랑의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온전한 친교,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소중한 일치, 나자렛의 성가정의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 천상의 성인들의 흠 없는 형제애에서 흘러 지속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그 충만함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정으로서 걸어가는 역사적 여정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궁극적인 하늘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완벽함과 순수한 의향과 항구함을 인간관계에서 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또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게 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늘 이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의 가정이 되어 이 여정에 나섭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친교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 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이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의 계획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자비의 희년을 지내며
교황 재위 제4년
2016년 3월 19일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프란치스코



가을을 담는 행복바구니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아침 햇살에 이끌려 반쯤 열려있던 창문을 활짝 열고 멀어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원하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며칠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가을이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먼 하늘에 펼쳐진 하얀 구름이 공작새 날개를 만들어놓고, 몽실몽실 피어나는 꽃송이도 만들어 놓았다. 저 신비로운 구름 꽃 한 다발 꺾어 우리 집 성모님 앞에 걸어 뒀으면...

이젠, 입추도 지나고 삼복더위도 지났다. 내일모레면 처서가 되니 더위는 멈추게 될 것이고, 가을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벽에 걸린 달력이 알려준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돌아가고, 풀도 울며 돌아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서늘한 기온에 힘없는 미물들은 조금씩 자취를 감춘다.

가을이 오면 고추잠자리와 메뚜기도 제철을 맞아 즐겁고, 귀뚜라미 노랫소리는 고요한 밤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을 수 있으니 가을밤은 행복하다. 어젯밤에도 지지재재 찌르르 찌르르 밤벌레 노랫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 시원하게 목청 높이며 울어대던 들 매미 소리도 이젠 내년을 기약하겠지!

가을은, 주렁주렁 탐스러운 대추와 발갛게 물든 감 홍시, 온갖 과일들이 풍성하고, 들판엔 누가 먼저인지 고개 숙인 겸손한 곡식들, 부지런한 농부들의 손에 이끌려 알곡을 타작하기에 바쁘고, 또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 준다는 전어 구이에, 호박잎 깻잎 찜서 올리고, 구수한 된장찌개에 애호박전 푸짐하게 부쳐놓고, 오이소박이에 열무김치 한 사발 떠 놓으면 어떤 식당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가을 밥상을 생각만 해도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울긋불긋 화려하게 물든 산들은 가는 곳곳 작품 전시를 하고, 등산객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이산 저산 점수가 매겨지기도 하는 가을 산 작품 전시회, 올가을엔 나도 그 작품전 관람 한번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나는 가을이 참 좋다. 내가 태어난 계절도 가을이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맛있는 햇과일을 비롯하여 햇곡식으로 만든 생일상을 차리게 된다. 또 가을엔 추석 명절을 빼놓을 수가 없다. 차례 상에도 햅쌀밥이 오르고 햇과실들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가을엔 서로서로 나눔도 풍성해지는 것 같다.

올가을엔 작년에 못 했던 독서를 좀 해야겠는데, 어린이 동화로 할 생각이다. 내가 요즘 배우고 있는 구연동화에서 어린이들처럼 손 울동도 하고, 부채도 만들고, 애벌레도 만들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무척 즐겁다.

행복은 지천에 널려있다. 그 행복을 내 마음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 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법을 요즘 배우는 중이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며 사는 것이기에 스스로 만들며 지낸다. 주워 담기에 부담 없는 것들만 담는다. 소박하고 작은 행복만을 담으려면, 바구니도 내게 알맞은 크기여야 되겠다. 약간의 영성한 바구니가 좋을 것 같다. 나의 행복이 바구니의 구멍을 뚫고 나와 이웃에게도 나눠지길 바라면서...

산과 들 온 천지가 이제부터 가을 색으로 꾸며지게 되고, 우리 동네 가로수길 감나무엔 어린이 주먹만 한 크기의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따금 땅바닥에 떨어진 감들은 조금씩 불그레한 색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소소한 가을 풍경을 미리 그려보면서 앞당겨 행복바구니를 열어본다. 내가 맞는 가을을 행복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니,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로 먼저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덕분에 게을렀던 기도 생활, 나눔 생활, 선행과 극기, 희생을 모아 행복바구니에 담아보기로 한다. 오늘 내게 베푸실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